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나주경찰, 장애인 인식개선 위한 유관기관 합동간담회

정경채 서장 “좀 더 세심한 감성치안 서비스 제공”

나주경찰서(서장 정경채)는 지난 17일 지체장애·농아인·시각장애인 협회 나주시지회, 전남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6개 단체장 및 나주시청 관계자를 초청해 경찰서 수사·민원부서 소속 경찰관 30여명과 합동 간담회를 가졌

다. 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의 이해와 전담경찰관 제도 안내, 장애인 인권 감수성 향상 및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적 수사방법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장애인 단체장들은 장애인

로 겪었던 경찰의 수사·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고충, 생활불편사항 그리고 장애인유형별 대면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과 하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또한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 장애인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정경채 경찰서장은, “이번 간담회



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길 바라며 발전적인 소통의 첫 걸음으로써 좀 더 세심한 감성치안 서비스를 제

공하여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수급 빈곤층 벗어난 저소득층 38.7만명

2017년 11월 ‘老-老’障-障’ 부양 적용 제외

작년 주거급여 기준 폐지...2022년 4단계

급여별 보장 확대...빈곤위기 안전망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생계·의료급여 4만7000명, 주거급여 34만명 등 38만7000여명이 비수급 빈곤층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안을 채택했다.

2017년 8월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 따라 1단계(2017년 11월)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했다.

2단계(지난해 10월)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3단계(올해 1월)로 부양의무자 가구에만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나 생계급여의 경우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생계·의료급여)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정부는 2022년 1월 4단계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되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10만명가량도 2017년부터 매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수급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급여별로 보장수준도 확대됐다. 생계급여는 일부 수급자(대학생·만 24세 이하, 7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확대 적용했다. 주거급여 중 인차급여는 2019년 1월부터 급지별로 5.0~9.4% 인상하고 고령자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때도 50만원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1세 미만 외래진료비

경감, 임신·출산 진료 지원 강화, 본인부담 없는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100개) 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올해 1월)과 구순구개열(3월), 주나오법(4월), 두부·경부 MRI(5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7월) 급여와 및 정신과 약제비 행위별 수가제 적용(6월) 등을 통해 의료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에 학용품비(5만원)를 신규 지급했으며 올해부터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당초 계획(2020년)을 1년 앞당겼다.

자활급여 단가를 최대 26% 인상(최대 월 139만원, 시장인입형 기준)하고 자활근로일자리 확대(올해 5만8000개 목표), 희망·내일키움통장 기준완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대상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설 등으로 근로빈곤층 지원

을 강화했다. 부처별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사업(109개) 중 76개 사업에 대한 차상위계층에도 자격 확인 시 별도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해 빈곤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난해 7월부터 병에 사회복지공무원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 조건도 완화해 위기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는 종합병원급 이상 경증질환 약제비 3% 대상을 지난해 11월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급여일수 연장 승인 제도개선, 사례관리 및 현지조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원호 서울취재본부장

광양시 진상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6개 민·관 단체 협력 1500만 원 상당 지원 마련



광양시 진상면사무소는 최근 22일간 6개 기관·단체와 협력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공적지원이 어려운

경우 복지 자원과 지역 후원자를 발굴·연계해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4월부터 공적 복지사업, 민·관 협력 사업과 후원자를 발굴·연계해 총 1,500만 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에 진상면 맞춤형복지팀(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100만 원, 광양시 주민생활지원과(우리동네 복지기동대) 50만 원,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500만 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500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185만 원, (주)

초록건설 162만 원을 각각 후원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는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임면 다문화가정으로 지방에 누수현상과 집뒤편의 언덕이 무너져 붕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시는 마련된 후원금으로 지붕 및 외벽 공사, 보일러 신설, 단열 및 도배장판 실시 등 내·외부 환경을 새롭게 정비했다. 사업 후원을 받은 대상자는 “이번 집수리 지원으로 앞으로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사정 진상면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 인적안전망 구축 강화와 지속적인 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가며,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 강진군지부 하계수련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진군지부는 지난 17일 시각장애인과 가족, 보호자 등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안 천사대교 및 영광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일원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각장애로 바깥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 화합과 소통의 장을 제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되었다.

환송에 나선 이승욱 군수는 “무더

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모처럼의 나들이에 회원 간 화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군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련회 참석자들은 오전에 신안 천사대교를 관람한 뒤 오후에는 영광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로 이동하여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면 난산마을에서 온 오종용 회원은 “시각장애인이 어디서 어떤 외출을 하겠냐, 이번 여행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준 강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진=김영민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